

데스크 시각

투표로 갈등·혼탁 심판해야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의 유명한 카피는 6·4 지방선거를 상징하는 카피로도 제격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 자체가 반전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말 그대로 ‘상상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겠다며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37일 만인 지난 3월 2일 전격적으로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공동의장들과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결정된 합당은 영화로 치면 극적인 반전인 셈이다.

정계의 책사로 평가받는 윤여준 공동의장은 “이름 수 없는 꿈을 꾸었다”며 별 감을 돌려 당을 떠났다. 지방선거에서 한 판 결을 준비하며 치열한 각을 세웠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 출마에

새정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공천은 지방선거에 있어 가장 극심한 갈등을 불러온다. 갈등은 영화의 구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국회의원 다섯 명의 운장현 후보 지지는 공천 갈등의 촉매제가 됐다. 공천을 앞두고 특정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지방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그들은 광주

의 변화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원들의 예기치 못한 ‘커밍아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운장현 후보를 전락공천했다.

이후, 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기초연금 문제 등으로 전략공천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분공천, 나눠먹기 공천이 아니며 광주 변화를 이끌기 위한 아젠다를 위한 ‘기초선거 무공천’의 당론이 여론조사에 의해 뒤집혔다. 현실 정치에 새정치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묻혔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구 새정치연합과 구 민주계의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원내 수석대변인이었던 이윤석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교함을 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의 ‘임’이 당의 ‘얼굴’에 짐을 쌓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불·탈법도 상상 그 이상이었다. 당원 경선에 대비, 물 밑으로 진성당원 모집에 나서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합당 이전의 일이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모양새를 구겼다.

여기에 전화의 작신 전환은 이미 일반화됐다. 후보자 모두 여론조사에 대비해 지지자들을 대기시키는 수준을 넘어 기존의 KT 진 전화 회선을 탈법적으로 확보하는 수법도 성행했다. 전화 회선이 많은 대리운전, 택배 회사와의 연계도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여론조사 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매섭고 지혜로운 한 표 행사들

세월호 참사 국민에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펼쳐졌다. 새 정치는 찾아볼 수 없었고, 금권선거는 곳곳에서 악취를 풍겼다. 지방선거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제 시민의 올바른 선택만이 남았다. 선거의 속성상 과정은 잊고 결과만 남는다. 그 결과는 우리의 수준이며,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미래다. 엄중하고 냉엄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혼탁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유권자들이 묻지마 투표가 아닌 냉철한 한 표 행사로 감동의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매섭고 지혜로운 한 표 행사를 기대해 본다. /tuim@kwangju.co.kr

社說

투표 기권은 민주시민 포기하는 행위다

6·4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유권자는 그 주인공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따라서 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지역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오늘날만큼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광주·전남지역 1221개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1만33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7명을 뽑는 ‘1인 7표제’다. 찍을 후보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면 지칫 혼신을 빚을 수도 있다.

유권자는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게 된다. 그 만큼 유권자 개개

인의 판단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지역, 내 자녀 교육이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과열과 혼탁이 난무하면서 갈등양상을 빚은 만큼 거기에 휩쓸려선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감시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아무리 1인 7표로 투표방식이 복잡하다 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꼭 준수해야 한다.

유권자가 주인 의식을 잃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우리 민주주의도 그만큼 진전할 수 있는 것이다.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이라고는 하나 결코 노는 날로 인식해선 안 된다.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20대 초반 새나이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 변화를 내 손으로 일꾼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中 관광객 위한 대형판매점·면세점 늘려야

광주·전남에 중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 판매시설 및 품목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최근 전남을 방문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요구 사항에서도 확인된다. 중국 선전과 상하이에서 온 양웨이 관광단은 남도의 풍광과 주민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韓翰)을 타고 중국에서까지 우리의 전통 먹거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관광단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김이나 김치 등 일부 특산 식료품에 국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이들 관광단은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 선전에서 왔다는 한 부부는 “사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비치된 품목이

적어서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다”며 “대형마트나 특산품점에 더 들르고 싶었다”고 여론을 남겼다. 상하이에서 온 수를 찾은 관광객은 “경치는 좋는데 살 물건이 충분하지 않다. 싸고 좋은 상품이 많은 면세점이나 대형특산품 판매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만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판매 활성화 전략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임을 말해준다. 중국인 내방객은 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얘기다. 관광객들의 만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사바빠 강구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패턴을 잘 파악해 맞춤형 전략을 구대음을 필요로 있다. 전통음식을 물론 건강식품과 공예품 등 지역 대표 관광상품 특장점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성수기에는 기업체 등과 제휴해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은편클럽

국가의 주인은 나, 국민이다



임명재 약사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을 우리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독재권력 시절에 오랫동안 빼앗겨서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것을 회피하려는 의식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소외되어갈 것이다. 국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곧 투표이기

에 오늘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권회사라고 하면 국민이 곧 주주이고, 주주들은 똑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각의 임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느냐의 여부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주주의 이익이 아니고 특정 주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익을 키우려고 했더니 불법적이거나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부도라도 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빛이라도 내어와 된다면 우리가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

IMF를 통해 우리는 사장을 잘 못 뽑으면 정말 이렇게 큰 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국가라는 회사도 망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보다 작은 기업들이야 아무 때라도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어려워지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의 책임이 크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였던 노키아는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다. 국가라는 회사도 얼

마든지 대표이사가 부패한 행위로 부정 축재를 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선거라는 제도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실현시키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피선거권자들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재부여할 수도 있기에 투표는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좋은 일꾼을 뽑게 되면 그의 노력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를 뽑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사람들은 유유상종한다. 대표의 성향에 따라 임원진과 관리직 그리고 심지어 신입사원들까지 결정된다. 좋은 대표는 그가 추구하는 경영철학과 비전에 걸맞은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태도가 그러했고 지금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낸 세계적인 회사들도 인재들 중 요시했다. 그 반대의 예를 보면,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해경이라는 대처 방법이나 해양경찰과 청해진해운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그 직

책을 맡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국가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한 신분이다. 그러기에 국가공무원에 관련된 법률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가 업무를 그 공무원에게 위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은 그러지 못했다. 문제해결 능력도 없었고 투철한 사명감도 전혀 없었다. 단언컨대 그 조직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면권자의 눈치만 살핀 것이다. 국민들이 그들의 상관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었다면 결코 그 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자. 정말 그 업무에 적합한 후보인가를 살펴보자. 자연과 학연 그리고 인정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자. 내가 주인인데 월급을 주며 일할 직원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평가하자. 내 월급을 준다 면 절대 아무나 대충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으로 온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은편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은사님의 명퇴 사연



이재진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평소 형님처럼 허물없이 모셨던 대학 은사께서 명에퇴직 신청을 했다는 얘길 듣고, 정년까지는 아직 5, 6년이나 남은 분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게 여겼던 명퇴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기가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은사님이 모 대학교에서 열린 학회를 갔다가 뒤돌아가 있어서 한참 시골벽처럼 유쾌를 즐기는 중에 옆자리에서 큰 소리로 다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분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다투느냐고 합석했던 그 대학 보직 교수

께 물었더니 자기 대학 A교수라는 분과 총장인데,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A교수의 명퇴신청 결정을 철저히 달라는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교수가 그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욱 궁금해서 철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학생들을 가르칠 열정이 사그라들고 없는데 교육자로서 양심상 어떻게 강단에 남아있겠느냐? 자신보다 더 열정 있는 후배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그렇다면 안식년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허사여서 총장이 직접 설득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뒷날인 말이 A 교수에게 ‘열정이 없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KAIST에서 석사, 미국 버클리 소세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평소 대쪽같은 성품 탓에 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강의시간에 늦거나 빨리 끝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는 강의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력도 탁월해서 대학평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

에 여러 교수들이 함께 만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은사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A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는 은사께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A교수는 휴대단, 자동차, 골프채가 없는 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었고도 했다. 수시로 올리는 휴대폰과 골프채는 연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장만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순간의 충격으로 급히 서둘러 속소로 돌아와서 은사님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명예 퇴직원을 냈다는 것이다.

은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 또한 한참을 긴 사념에 잠겼다. 마침 신문에 낯선 내용이었기에 이 시대 가르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소재여서 스크랩해 두고 그 기사 내용을 두고 학과 교수님들 과도 의견을 나누었던 터라 더욱 감동적이었다.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A

교수가 자신에게 취재자 나온 기자에게 건넨 메모 내용이 생각났다. 대학에서 그렇게도 만류하고 있는데 왜 그리 거절하도 물러나려고 하느냐는 신문기자의 인터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퇴직에 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제발 관심을 접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짧은 메모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였다.

다더여겨꾸 마신 술집에 “은사님, 잘하셨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실천으로 옮기신 처사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로 해드렸다. 평소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을지라 눈빛만으로도 그 이상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했다고 하더라도 한 시대 이 나라 동량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대학교수로서의 양심에 빠 속 깊이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니다 싶을 때 거침없이 기록권을 내려놓는 결단,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런 분의 제자임이 점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와 같은 양심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질 수 있을가 생각해 보니 더더욱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無等鼓

신화와 전설은 한 민족, 그리고 한 국가의 공통된 가치관과 우주관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다. 반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는 그 역사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살펴보면 그 같은 자부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분야가 ‘종합예술’로 불리는 영화다.

요즘 국내 영화계는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SF블록버스터 에 포위된 모양새다. 지난달 개봉한 ‘엑스맨’이 관객 수 1위를

족 또는 한 국가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려면, 이들 영화는 세계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오락거리’를 찾는 세계인들은 가까이에 ‘돈을 내고’ 이들 영화를 보고 싶으니 미국으로서는 ‘돈도 벌고 문화도 전파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하지만, 그렇수록 우리 신화와 전설은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무리 ‘한국적인 것이 세

계적인 것’이라고 외치지만 베토벤과 헨크는 알아도 천지왕과 대별왕·소별왕, 자정

비와 문도령, 만산신산할라곡이, 당금에 거처럼 우리 겨레의 삶을 지켜보고 보듬어 온 신화 속 주인공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경제대국이다. ‘문화는 국력의 퍼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선보여 국내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얼마간의 휴머니즘이 비껴져 있긴 하지만,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SF 블록버스터’들은 본질적으로 신(神)적인 존재 또는 영웅에 대한 인간들의 환상과 동경을 충족시켜준다. 영화가 한 민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